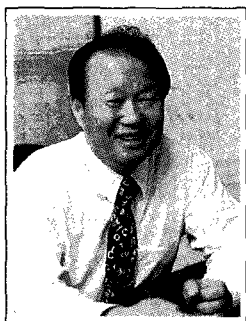


원자력 벤처산업의 발굴과 기술담보 대출제도

허 남

한국종합기술금융(KTB) 감사



자 기회를 추구한다.

특히 일반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 참여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적은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 기업과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이 동일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었기 때문에 위험이 과대 평가 되지 않고 증권 회사도 적극적으로 인수를 주선한다.

거액의 장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가 직접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판별할 수 없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명성과 능력을 믿고 벤처 펀드에 참여를 한다.

벤처 캐피탈의 기능 및 역할

벤처 캐피탈은 자금 지원과 더불어 경영 지도 등을 통하여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써 미성숙한 중소기업을 성장의 지름길로 안내하게 된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제도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개 직전의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 업체가 제도에 오른 후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권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투자 자본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벤처 캐피탈의 후견이 있

벤처 캐피탈의 기능과 역할

투자 또는 장기 조건부 융자 등의 방식에 의해 지원하고 원리금의 단순한 회수보다는 투자 기업의 성장에 따른 자본 이득을 추구한다.

1회에 한하는 자금 공급이 아니고 연구 개발을 포함한 기업 활동의 진전에 따라 성장 및 관리 자금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자금 지원과 더불어 경영 지도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성공을 위해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에 의한 벤처 기업의 성장·발전은 기술 개발의

벤처 캐피탈은 기술력과 잠재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 기반이 취약한 벤처 기업에 대하여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경영 관리·기술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위험이 높다고 인식되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 안목으로 발굴하여 저위험-고수익의 투

본 <워크숍 중계>에 실린 2편의 글은 7월 15일 원자력기술협회 주최로 열린 「원자력 벤처산업의 현황과 참여지원」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이다.

촉진 등 국민 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 기업이 성공하려면 다방면의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벤처 캐피탈은 초기 벤처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며 최근의 기술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업의 취약점을 벤처 기업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산업 체제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중소형 벤처 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활동하므로 상호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사업성이 유망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금과 경영 경험이 부족한 잠재적 사업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정신을 함양·고무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성장된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내재 가치가 충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나라 벤처 투자의 문제점
-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

1.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의 부족
가. 자기 자본 확충의 한계

리스크가 크고 회임 기간이 장기간인 벤처 캐피탈의 특성상 자기 자본 성격의 재원 한도 내에서 영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은 현재 기업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주식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갈 수밖에 없으나 기존 주주들의 자금 여건상 계속 증자는 불가능하다.

또한 KTB 등 일부 벤처 캐피탈을 제외하고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여 내부 유보금이 미미한 실정으로 벤처 캐피탈 재원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나. 투자 조합 결성의 어려움

투자 조합은 미국의 경우 전체 벤처 캐피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유용한 벤처 캐피탈 재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조합 결성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수익성 측면의 성공 사례가 많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시중의 유휴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 하에 시중의 유휴 자금이 산업 자금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금융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자 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및 지원책도 부족한 실정인데, 미국의 경우 상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 국내의 경우에는 관심도가 낮고 투자 조합 투자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제도적 혜택도 시중 자금의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2. 투자 회수 여건의 미비

가. 엄격한 상장 요건

벤처 캐피탈의 궁극적 목표는 투자 기업을 상장시켜 기업을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본 시장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며, 그 회수 방법에는 3자에 의한 인수, 기업의 매각, 투자 기업의 직접 인수 및 장외 시장이나 증권거래소를 통한 자본 공개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여 수차에 걸쳐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벤처 캐피탈의 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한 예로 89년 상장 요건이 업력 3년, 납입 자본금 5억원에서 현재 업력 7년, 납입 자본금 30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증시 물량 조절 때문에 상장이 그리 쉽지 않다.

나. 장외 시장의 부진

이의 보완으로 87년 출범한 장외 시장은 등록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충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래 실적도 극히 부진(94년 매매 회전율 4.1%, 거래소시장 174%)하고 기업들이 장외 시장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공모를 통한 신주 발행이

사실상 어렵고 주식 시장에 비해 세 제상의 불이익, 그리고 증권사의 관심 소홀에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벤처 캐피탈은 비상장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높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현실성이 낮다고 하겠다.

다. 기업 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일부 비현실적 요소

기술 집약적 벤처 기업인 경우 기업 공개시 공모가 산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

연구 개발 투자가 많고 고정 자산 투자가 적은 기술 집약적 벤처 기업인 경우, 공모가 산정시 자산 가치의 저평가로 실제 내재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6만원대에 거래되던 M기업의 상장 공모가는 1만원대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상장 후 주가는 10만원대에 달한 예도 있다.

3. 벤처 캐피탈의 경영 환경 취약

가. 투자 대상 시장의 협소
우리 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술력 면에서 독자적 틈새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창적 기술 개발 능력이 취약하다.

대학·연구소 등이 산업 및 시장과 유리되어 Spin-Off형 창업의 분위기가 미성숙한 상태이고 기술 창업의 경우에도 세계 최초같은 최고 수준의

창업은 많지 않고, 수입 대체와 같은 국내 최초 수준의 창업이 대다수이다.

나. 기업가의 전통적 인식

우리 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 인력이 모험 정신의 부족,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나쁜 인식 등으로 대기업에서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창업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나의 회사' 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타인의 지분 참여를 침해로 여겨 거부하고, 조세 회피를 위해 외형의 노출을 꺼리는 일면도 있다.

다. 벤처 캐피탈 경영 기반 취약

벤처 캐피탈 업계의 과잉 설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투자 부실화에다 투자 심리·기법 등 관리 측면의 노후도 부족한 편이다.

즉 사업 경험 부족, 전문 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원자력 벤처 산업 예시

원자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도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벤처 기업도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KTB가 산업용 원자 현미경 개발을 위해 4억원을 투자한 (주)피에스아이에이(PSIA)사의 경우를 소개해 본다.

원자 현미경은 물체의 형상뿐만 아니라 전기적·자기적·물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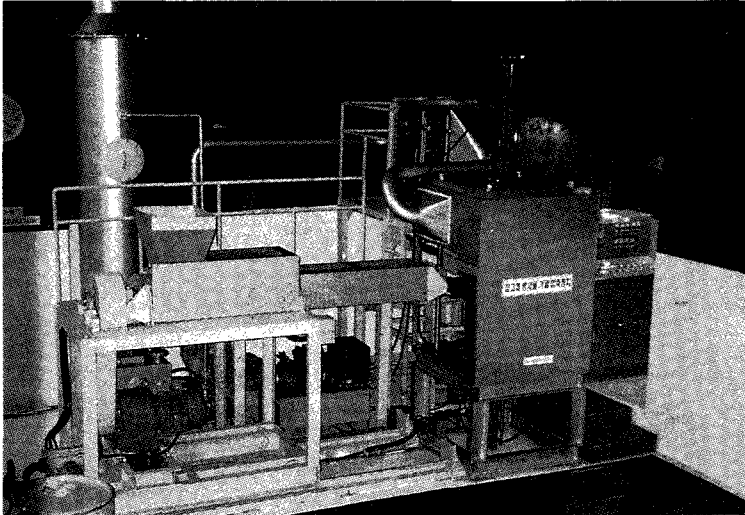
도 알아낼 수 있어서 각종 연구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장비이다.

특히 반도체나 정보 저장 분야에서는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256 MB DRAM의 경우 기존의 장비로는 더 이상 관찰이 불가능한 미세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더욱 높은 배율의 특정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PSIA사가 개발할 예정인 반도체 검사용 원자 현미경은 이러한 미세 선평 검사 등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PSI사로부터 지적 재산권 및 노하우의 사용권을 받고 현재 시판중인 연구용 원자 현미경의 골격에 필요한 기능과 robot arm이나 인공지능 등 부가 장치를 추가하여 원자 현미경의 사용을 간편화 시킬 예정이다.

현재 원자 현미경은 주로 연구 분석용 장비로 쓰이고 있는데, 전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억불 정도로 추산되며 매년 15% 정도씩 신장되고 있다.

한국의 원자 현미경 시장은 연간 25억원 정도로 전세계 시장의 5%에도 미치지 못하나, 최근 상당히 늘어 삼성·LG·현대 등 세계적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PSIA사 제품을 적극 수용하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대만·중국·일본 등의 수요가 크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ITA(International Technology Associates)사가 제의하고



집고체 방사성 폐기물 가열 압축 장치. 벤처 기업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R&D가 뒷받침되지 않는 벤처는 거품으로 끝나기 쉽다.

있는 첨단 방사성 폐기물 기술이다.

최근 미국에서 연구 개발된 창조적이고 우수한 첨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은 양자 촉매 추출법이다.

양자 촉매 추출 처리 기술은 금속의 촉매와 용매성을 이용하여 방사성 원소들을 무방사성한 원소들로부터 분리시켜, 방사성 폐기물 양을 아주 적게 줄이고 또 안정된 형태로 만들어 이를 밀폐시켜 최종 처분하고 무방사능한 원소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 기술은 상용화를 위해 성공적 실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분야의 벤처 기업으로의 발돋움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작업 종사자들이 착용하는 방호복은

현재 공기 부유진 흡착 등 기초적 오염 방지의 역할을 하는 작업복 수준에서, 방호복이 내부로는 땀의 흡수가 잘 되고 옷 표면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흡수되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 필요로 하며, 그 기능을 한 수준 높여 방사선 차폐의 효과가 있도록 신체 부위별 차폐 효과도 증진시킨다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현대 과학의 기술 집약적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 분석 장비의 국내 생산품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G-7 의료 공학 연구 개발 사업으로 「자기공명 영상진단기용 초전도 마그네트 개발사업」을 한국전기연구소로 하여금 추진케 하여 실용화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현재

개발 상용화가 가능한 200MHz의 NMR(Nuclear Magnet Resonance : 핵자기공명 분광장치) 및 초전도 Magnet를 이용한 250MHz급 이상의 NMR 제품 개발에 선두 기업으로서 한국SMT(주)가 국내 최초의 초전도를 응용한 기술 전문 회사로 탄생케 되었다.

벤처 기업으로 잘 성장한다면 Head Scan용 초전도 MRI 마그네트 개발이 예상된다 많은 국민이 싼 값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2,000만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벤처 기업 특별법 제정 - 정부의 주요 추진 시책을 중심으로 -

1. 직접금융의 활성화

가. 연금 및 기관 투자자의 벤처 기업 투자 허용

각종 연·기금 투자 신탁 회사, 보험 회사 등은 원칙적으로 비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벤처 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 또는 창업 투자 등에 출자를 허용

나. 외국인 벤처 기업 100% 투자 허용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상장 주식에 한하여 주식 취득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도 별도의 한도 규정이 존재(외국인 1인당 : 6%, 외국인 전체 : 23%).

다. 벤처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인 투자자들의 창업 투자 조합 출자분에 대해 일정 비율(25%)의 소득 공제를 하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 자금과 창업 투자 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

라. 벤처 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 보증의 실시

신기술성·혁신성이 있는 벤처 기업이 용이하게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사용 보증을 의무화

2. 기술 및 인력 공급 확대

가. 산업재산권을 근거로 한 현물 출자 허용

기술을 근거로 한 출자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본금 증대 효과 및 사업화 촉진

나. Stock Option 제도의 활성화
주식 액면가 인하로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해 Stock Option 제도의 원활한 기반 마련을 하며 Stock Option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벤처 기업의 고급 인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다. 벤처 기업에 대한 교수·연구원의 참여 확대

대학·연구소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교수의 벤처 기업 창업 또는 경영 참여시 휴직 허용으로 고급 기술 인력 공급 확대

라. 병역 특례 전문 연구원의 전직 허용

전문 연구 요원 편입 후 2년 경과 이전에도 전직 가능토록 개선(현행은 2년 경과시만 전직 가능)

마. 기술 담보 제도 도입

기업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원활화 및 기술 개발의 유인을 부여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3%이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하는데 용자 조건은 연리 7.5%이다)

3. 입지 공급 원활화

벤처 단지(기술 기업 전용 단지)에 대해 산업 단지 적용 인·허가의 제·지방세 감면 등을 허용

가. 건축법상 입지 규제 배제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을 허용

나. 벤처 기업의 입지 관련 세제 감

벤처 빌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벤처 빌딩에 대한 지방세 5배 증가 배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10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

1. 양질의 자원 조달 활성화

가. 벤처 캐피탈의 자본 확대 유도
벤처 캐피탈의 특성상 자본금의 확대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따라서 벤처 캐피탈은 특별한 시각에서 기업 공개를 검토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벤처 캐피탈의 증자 요청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

가.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투자 조합은 벤처 캐피탈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원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투자 조합의 70%(93년 기준)를 기관 투자가(연기금·재단)가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 조건으로 인해 31%(9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조합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 투자 조합 활성화 제도 개선책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로부터 얻게 되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없애, 다른 활동을 통한 자본 이득 세율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율의 차등화는 투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벤처 투자 조합에의 유입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투자 조합의 배당 소득에 대한 20% 분리 과세율도 더욱 낮추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인할 필요

가 있다.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본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금융 시장 개방 정책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 자산 운용 기관의 투자 조합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장기 자산 운용 기관인 기관 투자가에는 보험 회사, 증권 회사, 공무원 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 조합에의 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자산 운용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투자 조합에의 출자를 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투자 조합으로부터 벤처 투자를 받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 혜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 벤처 기업의 성공 사례 발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성공 사례로 많이 확보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가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최대의 벤처 캐피탈인 JAFCO는 10여년간 투자와 융자를 따로 계리함으로써 투자가 융자보다 수익성이 높음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보험 회사,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앞장서 투자 조합에다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는 등 투자 사업 조합

으로의 자금 유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가 벤처 기업에 대한 American Dream을 형성하였다.

92년 기준으로 벤처 캐피탈의 내부 수익률이 13.2%로 10%를 밑도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인플레이션 : 2.9%).

우리 나라에서도 모험 기업의 개발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투자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하며, 벤처 캐피탈이 높은 수익을 시현했다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 제도 개선

가. 투자 자금 회수 방안의 다각화

미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도 기업 공개의 경우가 가장 수익성은 높지만, 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기타 방안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기간 후에는 투자 회사에 재매각 또는 제3자에 인수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 장외 시장의 활성화

미국의 경우 NASDAQ 시스템에 의한 장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 감시 기구도 강화되어 있어 유동성이 높고, 벤처 캐피탈의 자금 회

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 시장 등록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낮으며 거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또한 환금성에 대한 우려감 등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 장외 시장 등록 종목에 대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거의 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장 외의 회수 대안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관행상 상장 전단계 시장으로서 장외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장외 시장 활성화 방안

장외 시장의 등록 범인이 공모 증자 등을 통해 직접 금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 발행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한다.

정책적으로 우량 기업을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하여 등록을 권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하도록 한다.

벤처 캐피탈이 자사가 투자한 벤처 기업에 대하여 투자 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하여 성장 전망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장외 시장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

부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금융 기관의 대출을 억제하고 장외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조달을 유도한다.

아울러 장외 시장 등록 기업에 대하여 비등록 기업과의 금리상 차이를

두는 우대 금리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장의 시장 등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주식 장외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라. 상장시 공모가 산정 및 공모 방법 개선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 집약적 벤처 기업 산정시 공모가 산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술 집약적 벤처 기업의 경우 수익 가치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정당하고 경쟁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공모 방법의 개선을 검토할 수도 있다.

벤처 기업의 상장시 여러 증권 회사가 나름대로 내재 가치를 계산하여 공모가를 경쟁하여 제안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장 기업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증권 회사는 공모주를 전액 인수토록 하고, 이후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전부 증권 회사에 속하도록 한다.

이런 방법을 채택할 경우 자유 경쟁에 의해 정당한 공모가의 산출이 가능해지고, 크게 성공적인 벤처 기업의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벤처 캐피탈의 기능 활성화

가. 투자 수요 확충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영 여건상 투자만으로 기업 성장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 및 경영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기술이 초기 R&D 단계에서는 저리의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양산화 및 성장 단계에서는 시장 금리로 지원하여 신기술의 태동에서 성공까지 One-stop-service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 기관의 신기술을 기업에 알선해 주거나,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전 세계에 산재하는 기술·시장·금융 등 필요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기업이 원하는대로 제공하는 기능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창업자 또는 중·소 규모의 기술 집약적 벤처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코자 하는 경우, 세계적인 기술 정보·원천 기술·주변 기술·특허 정보·수출 시장 및 내수 시장의 경제 동향·해당 기술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 가공하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정보 제공 지원 제도가 현재 미미한 바, 이를 활용하여 기술력이 높은 벤처 기업이 계속 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벤처 캐피탈 등 민간 차원의 기관에서 정보 제공 서비

스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의 체제 구축이 미흡한 바,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나.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양성
우리 나라 벤처 캐피탈의 역사가 15년 정도 되지만 아직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육성에 따른 투자 선별 및 이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육성하는 노하우의 축적이 아직은 부족하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은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많이 있다.

일본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불에도 불구하고 모험 기업의 경영은 전체적으로 미숙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도 노하우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이 일본 벤처 캐피탈 부진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능력은 곧 성공적 모험 기업의 개발과 직결되는 만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

초기 창투사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투자 확대는 부실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기술 담보 대출 제도

다양한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 기업 기술 개발 자금 조달은 95년도도의 경우 소요 자금의 18% 정도만 외부에서 자금이 조달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요인은

- ①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차입이 어렵고
- ② 대출 심사시 기술력 평가에 대한 낮은 비중과 비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하는「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 담보 대출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 방향은 초기 단계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키로 하였다.

- ① 1단계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해 보고 본격 실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 ② 2단계는 시범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을 하면서 전금융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9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처의 기술 담보 제도는 우선 과학기술진흥기금 총 1,120억원중에서 300억원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대출 조건은 이자율이 연10%로서 지적 재산권 등 기술력 담보 원칙에 따라 신용 취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97년 4월에 1차로 63개 업체에 14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차로 35개 업체에 76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10개, 정보통신 11개, (비)금속 7개, 화학·생물 3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기술력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KTB 내에 설치된 「기술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동 센터는 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센터'와 KTB의 심사 담당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평가센터는 전기·전자, 기계·(비)금속, 화학·생물 및 환경·에너지 등 5개 전문 분야에 130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발전성·파급 효과 및 기업화 능력과 기술 자립도 등 5개 항목을 고려하여 기술력을 평가한다.

외부평가회의는 신청 기업의 기술자가 분과 회의에서 보유 기술을 설명하고 평가 위원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평가센터는 KTB의 50여명의 심사 인력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 전반적인 기술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35

개의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외부와 내부평가센터의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합산, 산술 평균한 종합 평가 점수에 따라 기업당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각 기업별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프로젝트에 기술력만으로 물적 담보 없이 과학기술진흥금을 지원받게 된다.

2차 사업 평가를 마감한 현재까지의 누적 지원금은 총 98개 기업에 216억원이며, 금년도 시범 지원 계획 300억원 대비 72%에 이르고 있다.

3차는 84억원을 연말에 지급하게 되는데, 동 사업 접수 마감은 금년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술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 신기술 제품 및 국산 신기술 인정(KT마크)을 받은 기업 ② 연구 개발 실용화 사업단에서 중재·알선·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③ IR52장영실상 및 벤처 기업상 수상 기업 ④ 공업발전법에 의한 개발 기술 실용화 인정(NT) ⑤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청 지정 특허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⑥ 설립 후 5년 이내의 신기술 창업 기업 ⑦ 기타 국가적인 중요한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기술 담보 대출 제도는 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담보 내지는 신용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코자 하는 기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을 위한 기업의 현재 가치 평가와 금융을 위한 기업의 미래 가치 평가가 기관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존 금융 관행과 물적 담보 위주의 금융 대출 관행의 틀을 깨는 것으로, KTB가 투자 심사의 노하우를 융자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벤처 기업의 성공 조건

벤처 기업 붐이 한참 일고 있는 이때에 30여년간 원자력계에 몸담았으면서도 원자력 벤처 기업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다.

그래서 원자력 벤처 산업으로 발전시켜 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예시로 과제를 나열해 본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원자력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 부지를 구하는 것인데, 부지 확보 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쓰레기 종량제처럼 대폭 감량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원자력 벤처 기업의 탄생이 기대된다.

특히 벤처 기업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R&D가 뒷받침되지 않는 벤처는 거품으로 끝나기 쉽다.

여기 벤처 기업의 성공 요건을 정리해보면서 성공한 벤처 기업 창업자들의 체험으로 터득된 벤처의 성공 조건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본다.

1. 한국 벤처 기업 성공 10계명

- ① 목표내 비전 설정
- ② 인재 확보
- ③ 기술 개발
- ④ 틈새(니치) 시장의 개척
- ⑤ 외부 지원과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 ⑥ 공격적 경영, 방어적 경영의 지양
- ⑦ 혁신적 경쟁 방법의 개발
- ⑧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 확립
- ⑨ 작고 강한 정예화 조직
- ⑩ 경쟁 우위의 축적
- (이장우 - 벤처기업론)

2. 창업 성공의 10가지 원칙

- ① 세계 최고의 기술 노하우
- ② 틈새 시장이나 새로운 개념의 분야
- ③ 제품 종류의 다양화
- ④ 시장 동향 및 라이벌 경쟁 조건의 명확한 파악
- ⑤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 ⑥ 산학 협력 기술 개발
- ⑦ 기회 이익 최대화보다 기회 손실 최소화
- ⑧ 빠른 속도로 사업 전개

- ⑨ 불확실한 상황의 컨트롤
- ⑩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영자의 의지
(일본 지베타테크놀로지사 사례)

3. 9가지 성공 조건(Hidden Champion by Herman Simon)

- ① 권위적이고 참여적인 지도력
- ② 과할 정도의 목표 설정
- ③ 자기 신뢰
- ④ 한정된 시장을 정확하고 집요하게 조준
- ⑤ 일 중심의 조직 구성
- ⑥ 빠른 기술 혁신
- ⑦ 영업 범위의 전세계화
- ⑧ 기술 개발과 마케팅의 결합
- ⑨ 경쟁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

4. 벤처의 성공 요건

- ① 스피드 : 변화에의 대응, 특히 기술 및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② 창조력 :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집중력과 발상의 전환 등이 기본이 되어 생겨나게 된다.
- ③ 설득력 : 물건을 팔 때에 누가 결정권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설득해야 한다.
- ④ 사람 다루기 : 경영자가 인간적인 면으로 조직 구성원을 대우하는 것이 최고의 인사 정책이다.
- ⑤ 포기하는 것 : 전망이 없는 것은 언제든지 미련없이 그만 두는 체념



방사선 작업관리 전산 시스템. 원자력은 종합 과학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원자력 벤처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야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중요하다.

⑥ 역설 지향 : 통설에 대해 의심을 품어보고 발상의 전환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다.

⑦ 권한 위임 : 부하 직원에게 책무감과 참여 의식을 부여해야 한다.

원자력계 및 원자력 벤처 창업자에 대한 조언

원자력은 종합 과학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원자력 벤처 산업으로 발전시킬 분야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사업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이나 원자력 발전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이 되온 것이 아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 의학 분야

의 활발한 이용 외에는 원자력 발전 분야 위주로 발전이 편중되어 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벤처 기업가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 사업에 기웃거리게 되는데, 특히 원자력 발전 사업은 안전성 위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니까 자연히 한전 직원으로부터 벤처 기업가가 냉대를 받은 예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벤처 기업은 말 그대로 모험 정신이 필요한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원자력 사업에 관한 한 한전으로부터 모험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벤처 기업으로 적절한 내용을 원자력 분야에서 찾아보되 굳이

원자력 분야에 한정치 말고 기술 집약적인 사업으로 성공할 벤처 분야가 원자력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으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수한 원자력 분야의 인력이 다른 벤처 분야에도 과감히 투신해 보면 어떨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아이디어만 좋고 시장성이 있으면 자금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는 한전 직원들도 원자력 벤처 기업가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과 지원을 주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원자력 발전 사업 증진과 안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므로 우리 다 같이 생각을 바꿔 보자.

그동안 원자력 발전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성공한 회사가 몇이나 되는가.

건설에 참여한 현대·동아·대우·한중·한기·삼성 등 몇몇 대기업들뿐이고, 우리는 중·소기업을 너무 키우지 않았다.

이는 정부 그리고 원자력계 모두의 책임도 크다.

전문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원자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그만큼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 세력도 되기 때문에 한사람씩이라도 더 늘려 한식구로 만들자. ☺